

무주군의회 군정질문 실시

황인동 의원, 주 4.5일 유연근무제 실시 · 관광재단 설립 요구

황인동 무주군의회 의원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무주군의 재정운용에 심각한 장애가 생겼다고 우려하며 예산운행 방향에 대한 무주군수의 입장을 물었다.



황인동 의원

황인동 의원은 12일 열린 제310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에서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무주군 2025년 예산편성 및 운영방향, 짧은 인사발령 기한에 따른 부정적 영향,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 무주방문의 해 운영효과, 반딧불축제 방문객 감소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질문을 했다.

황인동 의원은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의하면 무주군은 행사·축제성 경비절감 부분에서 14억7300만원, 지방보조금 절감부분에서 17억4500만원 등 32억원 규모의 페널티를 받고 있다. 이런 페널티 해소가 재원확보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세입 확보방안에 대한 무주군수의 견해를 물었다.

다. 또한 “인사발령 후 6개월 만에 다른 부서로 발령을 받는 사례를 근절해야 한다. 그리고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주 4.5일을 도입하는 등 사기진작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무주군수의 의견을 물었다.

황인동 무주군수는 지방교부세 감액에 대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무주군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커 참담한 심정이다.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예산편성 심사와 성과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6개월 근무 후 이투어지는 전보인사는 본인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전보인사 시 조직 안정과 개인의 고충을 살피고 현 부서에서의 근무기간도 고려해 발령하겠다”고 답변했다. 공무원 사기진작방안에 대해서는 6급과 7급 정원 확대로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내년부터 유연근무와 재택근무를 활용한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 실행하겠다고 답변했다.

황인동 의원은 이어 “무주방문의 해를 운영했지만 무주군 방문자 수는 오히려 전년보다 줄었다. 사전준비 미흡과 관광객 유인정책의 부재로 예견

된 결과”라며 어떤 면에서 준비가 부족했는지 질문했다. 또한 반딧불축제 예산은 증액했지만 외부방문자가 전년보다 15% 정도 감소했다고 지적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물었다.

황인동 군수는 이에 대해 “지역방문을 유도하고자 추진한 무주방문의 해는 지역 특색을 반영한 새로운 행사의 부재로 관광객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다만 ‘무주 하면 자연특색’이란 수식어가 연상될 정도로 지역 정체성을 확립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황인동 의원은 무주군 관광산업이 전문가의 분석과 계획에 의해 발전할 수 있도록 무주군 관광재단을 설립할 것을 요구했으며 황인동 군수는 출자·출연기관 설립타당성 용역을 수행하겠다고 답변했다.

황인동 의원은 “군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잘못된 것을 개선해 무주군 행정의 질을 높여보자는 취지로 질문했다. 오늘 군정질문의 답변이 답변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움직여달라”며 군정질문을 마쳤다.

/무주=전문선 기자

이영희 부의장, 인구시책 · 노인일자리 정책 개발 독촉

이영희 무주군의회 부의장이 무주군의 인구정책 효과를 묻고 무주군 정책에 맞는 인구시책 개발과 초고령화 사회 대비 노인일자리 마련, 지방재정 확충계획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무주군수의 입장을 물었다.



이영희 부의장

이영희 부의장은 제310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무주군은 효율적인 인구정책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 무주군이 지금까지 추진한 인구정책 가운데 대표적으로 성공한 정책은 무엇이며 최근 5년 동안 인구정책을 추진한 결과 어떤 효과와 변화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황인동 군수는 이에 대해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무주형 아이돌봄 사업 등 다양한 출산·육아 지원정책과 안정적 양육 환경 조성 노력으로 출생아가 지난해보다 4명 증가했다”며 “유연

한 근무환경 조성, 주거 및 정주여건 개선을 일관되게 추진해 저출생 문제가 완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영희 부의장은 또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무주군에서 노인일자리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노인 인력 활용정책을 물었다. 이영희 부의장은 “노인들이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근로를 하고 싶어도 기술이 없거나 능력이 되지 않아 참여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 사회적 일자리 참여 방안으로 노년기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희 부의장은 노인일자리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대책으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의 제정 △노인 고용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과 생산물품 우선구매 △시니어일자리 접대기관 설립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제안했다.

황인동 군수는 이 같은 제안에 적극 공감하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지역의 특성을 살린 노인일자

리 창출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노인대학과 평생교육, 노인종합복지관의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해 어르신 역량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 노인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동참을 이끌어내도록 조례안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영희 부의장은 이어 재정자립도가 낮고 보통교부세 삭감으로 악화된 지방재정 위기를 극복할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이영희 부의장은 “행정재정과 일반재산을 매각해 자체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지방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규사업의 억제와 마무리 사업 중점 투자, 내부 행정 경비 절감, 적극적 채납징수, 지방세수 확충 등으로 자주재정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무주군수의 견해를 물었다.

황인동 군수는 “재정확충과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해 유류재산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법적 제한 사항과 장기활용계획, 주민 정주여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답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인삼 · 홍삼 가치 제고 기대

진안홍삼연구소, 진세노사이드 신속 분석기술 개발

(재)진안홍삼연구소(소장 현동운)는 12일 홍삼의 주요성분인 진세노사이드 15종 이상을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HPLC,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를 이용해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는 동시분석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는 제약, 식품, 연구 및 전자재료 시장에서 반복적 시험검사에 이용되며, 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제를 위한 홍삼 유효성분 검증에도 이용된다.

진세노사이드는 지금까지 약 66종이 발견되었다. 고려인삼(Panax ginseng)에서 38종(백삼 25종, 홍삼 31종), 미국삼(Panax quinquefolius L.)에서 19종, 삼칠삼(Panax notoginseng Burkill)에서 29종의 진세노사이드 구조가 밝혀졌다.

국내에서 지금까지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진세노사이드 표준검사 방법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에서 고시한 ‘건강기능식품

의 기준 및 규격’ 방법과 한국산업표준(KS)에서 고시하고 있는 ‘건조인삼 시험방법’이 있으며, 위 두 가지는 9종 이하의 진세노사이드 분석법으로 R_{a1}과 R_c의 성분 분리가 되지 못하며, 진세노사이드 R_c와 R_{b2}의 피크가 겹쳐 정성 및 정량하기 어려움이 있다.

연구소는 진세노사이드 15종(Rg₁, Re, Rf, Rb₁, Rg₂, Rh₁, Ra₁, Rc, Rb₂, Rb₃, Rd, Rg₃, Rk₁, Rg₅, CK)의 피크가 겹치지 않고 분리되는 분석방법으로 품질인증제를 강화하고, 편리성과 산업적 효율성을 높여 인삼, 홍삼 및 흑삼의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진안홍삼연구소 전준성 이사장은 “이번 연구기술을 통해 진안지역에 인 · 홍삼 시장 활성화와 증가 및 군수 품질인증제 인지도 제고로 지역 발전에 큰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반딧불농산물’ 베트남서 홍보 판촉 나서

무주군이 무주반딧불농산물 수출 물량 확대를 위해 최대 수출국인 베트남 하노이를 찾았다.

무주군에 따르면 서재영 부군수를 비롯한 관련 공무원 등이 12월 1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무주반딧불농산물인 무주사인머스켓 수출 물량 증대를 위해 판매처 확보 여부를 타진했다.

농산물 수입업체 An Minh(대표 타이)와 무역업체인 쥘에버트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무주사인머스켓 수출 물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또 하노이의 대표적인 농산물 대형마트 F5 FRUIT SHOP 과 Top Market를 방문하여 수출 동향을 파악 및 판촉 행사 할



동을 실시했다.

베트남은 2021년부터 무주사인머스켓 수출을 시작으로 2024년 올해에는 수출 100톤 판매액 9억 원을 예상 전년 물량 대비 291% 증가할 전망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생활개선회,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최우수상

장수군생활개선회(회장 이화립)가 지난 10일 ‘장수군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올 한 해동안 지역농업 및 농업인의 농작업 환경개선과 지역을 위한 헌신과 나눔 실천에 대한 의미있는 결실을 맺었다.

장수군생활개선회는 1968년 농촌 주거 환경과 음식문화 개선 활동을 선두로 농촌여성의 권익향상과 농촌 후계인력 육성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로 현재 300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매년 회원들의 성금으로 200만원 상당의 쌀곡수를 기탁해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강상리

기 장수군네트워크와 함께 지역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또한 각 읍 · 면마다 회원들의 봉사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어르신 생신상 차림, 김치담궈 나누기, 경로잔치, 노약자를 위한 복지관 배식봉사 등 다양한 분야의 봉사활동으로 지역 내 칭찬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특히 농촌여성의 지도력을 배양하기 위해 매년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지역리더 양성교육과 농촌체험 활성화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농촌을 이끌어가는 여성단체의 역할을 톡톡히 해나가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제17회 진안군마을축제 결과보고회 진행

진안군마을축제조직위원회(위원장 최인석)는 지난 11일 31마을 및 6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개산약초타운에서 2024년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결과보고회에는 올해 마을축제에 참여한 마을 리더 및 주민,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해 제17회 진안군마을축제를 다시금 되돌아보고 축제를 진행했던 마을들이 모여 서로 소통하며 화합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특히 마을 축제에 참여한 31개 마을 리더들이 직접 발표한 소회를 통해 올 한 해 마을별 진행되었던 축제 내용을 현장감 있게 들을 수 있었으며, 내년 계획 등의 발표로 미리 마을축제를 그려볼 수도 있었다. 또한 마을축제에서 진행했던 소태정마을과 오동마을의 공연도 선보이며 많은 박수를 받았다.

한편 마을축제는 마을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축제를 준비하고 진행하며, 마을 공동체성 회복 및 주민 역량 강화 등의 긍정적 기능을 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미세먼지 저감 위한 ‘계절관리제’ 시행

진안군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3월까지 대응 사업을 시행한다.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수송, 생활, 산업, 홍보 등 각 분야에서 진행된다.

분야별 사업으로는 불법소각·비산 먼지 발생사업장 단속, 차량 공회전·배출가스 단속, 영농부산물 집중 수거, 다중이용시설 점검 등이 있다. 더불어 불법소각 예방 감시와 비산 먼지 발생사업장 단속을 위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원을 별도로 운영한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이행과 비산 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